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대통령 행사기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sidential Record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Focusing on the Records of Presidential Events

이경용(Yi, Kyoung Yong)**

1. 머리말
2. 기록관리비서관실과 대통령 행사기록
 - 1)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업무 기능과 대통령 행사기록
 - 2) 대통령 행사의 동영상 기록화 관련 기록
 - 3) 대통령 순방 기록의 기록화 관련 기록
3. 기록관리비서관실의 대통령 행사기록 정리와 의미
4. 기록관리비서관실의 '말씀록' 생산과 관리
 - 1) '개별업무시스템 말씀록DB'와 대통령 국정말씀록 관리
 - 2) 대통령 말씀록의 특성과 활용
5. 맺음말

* 이 논문은 한남대학교 2021년도 교비학술연구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한남대학교 사학과 조교수(kyyi27@hnu.kr).

■ 투고일: 2021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2년 01월 18일 ■ 최종확정일: 2022년 01월 24일.

■ 기록학연구 71, 131-167,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2.71.131>

〈초록〉

이 논문은 제16대 대통령기록 중에서 기록관리비서실이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 생산한 ‘말씀록’의 생산 과정을 둘러싼 기록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의 대통령 행사 기록의 생산 맥락을 올바르게 이해한 가운데 관련 기록을 연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대통령기록, 참여정부, 말씀록, 행사 기록, 대통령 행사기록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records surrounding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Word Record’ produced by the Office of the Records Management Secretariat in relation to the presidential event among the 16th presidential records. Through this, it was suggested to properly understand the production context of the records of the President’s events transferred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by the 16th President, and based on this, link and organize related records and actively utilize them.

Keywords : Presidential Records, Participatory Government, Word Records, Event Records, Presidential Event Records

1. 머리말

참여정부는 국가 기록관리 혁신 정책을 시종 기획·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대통령 기록’을 체계적

으로 이관해서 시민 일반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 기억 자산으로 남겨주었다. 2008년 2월에 이관된 ‘제16대 대통령 기록’은 역대 정부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시민 공유의 지적 자산’이다.

‘대통령기록 유출논란’으로 시작된 ‘대통령기록 전쟁’은 한국 사회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언론 지형 속에서 기록관리 전반, 특히 대통령 기록관리를 급속하게 퇴행시켰다. 현 정부 들어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 TF’의 설치, 민간 전문가의 국가기록원장 및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과 방향이 모색되기도 했으나(심성보 2020, 10-14; 조영삼 2020, 49-50) 유의미한 개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과 대통령기록관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정치 과잉’ 환경은 ‘의사결정 과정을 낱알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의 진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곽건홍 2020, 39)

그런데, 대통령기록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열람 환경이야말로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대통령기록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특정 주제와 관련한 검색 가이드의 필요성과 함께 ‘맥락 정보에 대한 기술의 빈약’함으로 인한 핵심 기록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김도윤, 이해영 2021, 155-156) 기록의 공개와 활용 측면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태생적 한계에서 찾고, 민간의 대통령 기념재단과의 협력 관계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이영지 외 2018, 75-76)

대통령기록관은 여러 논란의 와중에서도 다년간에 걸쳐서 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을 정리해서 목록집이나 기술서집 등의 형태로 제시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나름 ‘다양한’ 기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구현된 기록컬렉션에는 ‘원문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e지원시스템에 등록된 e지원문서관리카드, e지원일지, e지원일정 등의 다양한 유형의 기록 건들도 제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기록관을 향한 ‘기록 접근의 어려움’이라는 연구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록의 생산 과정과 내용적 특성을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기록철·건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정보만을 제공하는 목록집과 시리즈 단위(또는 서브시리즈)에 그치는 간략한 기술 정보가 담긴 기술서 등을 지속 보완하는 아카이브 본연의 업무 보다는 ‘연설문’ 같은 개별 기록들을 생산 맥락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는 ‘양적 서비스 제공’ 방식에 안주하는 경향성마저 보인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등록 유형별로 다양한 기록이 존재하며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정책결정과정과 지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록 생산 방식을 고려한 검색도구 마련, 곧 기록건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과 기록의 재조직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곽건홍 2019; 곽건홍 2020) 이 글은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의 특성과 가치를 기록의 내용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남대 산학협력단의 『제16대 대통령 기록관리정책 기록물 조사사업』 수행을 계기로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록목록과 기록을 검토하였다.¹⁾

2005년 4월, 참여정부 국정기록관리비서관실은 기록관리비서관실로 명칭 변경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의 기록관리 전담부서로서의 조직적 역할과 업무 기능을 부여받은 당시 기록관리비서관실이 스스로 설정한 주요 업무 활동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공공기록 관리 업무 혁신 및 제도 개선을 기획하였다. 둘째, 각 비서실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셋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세부 업무로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수집·관리·활

1) 대통령기록관의 김정은 학예연구관과 이춘진 학예연구사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용,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접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였다. 넷째, 대통령행사와 관련해서 생산되는 기록(보고서, 친필메모 등)을 수집·관리하고 ‘대통령 말씀록’을 생산·관리하였다.²⁾

필자는 이 중에서 특히 대통령 행사기록과 관련한 업무 활동에 주목하였다. 참여정부 기록관리비서실이 생산, 이관한 ‘대통령 행사기록’ 중에는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주재하는 다양한 회의 등과 관련해서 생산했던 ‘대통령 말씀록’이 있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과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기록 유형이다. ‘대통령 말씀록’은 기본적으로 관련 행사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비서실은 ‘충실한’ 말씀록을 생산하기 위해 대통령 행사 전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말씀참고자료, 행사일정표, 시나리오, 좌석표, 연설문, 친필메모 등’의 다양한 대통령 행사기록을 수집하여 말씀록 생산에 참조하였다.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이나 전문적 용어 등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정례적인 ‘공부 모임’도 개최하였다. 4장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대통령 말씀록’은 그 생산 공정 자체가 역대 대통령의 기록 유형 중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식과 구조, 내용으로 구성된 핵심적인 대통령 행사기록이다.

정리하면, 기록관리비서실은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대통령 행사기록인 ‘말씀록’을 생산하는 업무,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수행되는 다양한 대통령 행사기록을 수집·정리하는 업무, 그리고 2005년 4월부터는 ‘말씀록’ 중에서 일부를 ‘선별·가공’하여 ‘말씀록DB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관련 기록들을 생산하였다. 기록관리비서실이 생산한 대통령 행사기록의 특성과 가치

2) 【서무@기록관리비서관실】의 <<부서 서무행정>>(101021100000009) - 《기록관리비서관실 조직 소개 글 작성》(1010211100000847) - <기록관리비서관실 조직 소개 글 작성(안)>(101021110000084700000200). 본문에서는 가능하면 기록의 업무기능에 따른 계층 구조를 【업무기능이나 활동】 - <<기록철>>(대부분 단위과제명과 동일) - 《기록권》 - <세부 기록권>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한다.

는 ‘업무 과정과 결과를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조명되었던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과는 또 다른 것이다. 그리고 참여정부 대통령 행사기록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역대 대통령 기록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록의 특성과 가치를 활용한 기록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기록관리비서관실과 대통령 행사기록

1)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업무 기능과 대통령 행사기록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의 대통령 행사와 관련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행사기록 수집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록관리비서관실이 생산, 이관한 기록 전체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표 1〉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업무 기능별 기록건-세부기록건 현황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950(2,397)	대통령상징물, 행정박물 수집	19(40)
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 운영	885(1,428)	대통령 탄핵심판	2(2)
기록물관리 점검, 교육	261(501)	도서실 운영	1,154(874)
기록물 수집, 이관	293(650)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450(1,111)
기록물 정리, 서고 관리	212(220)	교육훈련@기록관리비서관실	19(62)
대통령(참여정부) 관련 기사 스크랩	481(62)	민원관리@기록관리비서관실	1(4)
대통령 국정말씀록 관리	6,129(1,158)	서무@기록관리비서관실	1,145(2,563)
개별업무시스템 말씀록 DB	908(850)	예산회계@기록관리비서관실	13(68)
대통령 기록물 인계 인수	622(660)	지시사항관리@기록관리비서관실	112(267)
대통령행사 기록 수집, 관리	1,317(156)	미분류	650(167)
<종합> 업무기능(활동) 20, 기록 건(14,621) -세부 기록건(13,238)			

※ e자원시스템을 통해 생산 등록된 전자기록들은 대통령비서실 RMS로 인계되어 대통령기록관의 PAMS로 기록관리시스템간 연계 하에 전자적으로 이관된 기록들이기에, 기록건별로 기본적으로 워드 형식의 파일(한글, MS워드, PPT파일, 엑셀 파일 등)과 PDF파일 등 2건, 그리고 기록 패키지 정보를 담고 있는 XML파일 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록건 보다 세부 기록건이 더 적은 이유는 XML 파일만 있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기록들이 많기 때문임.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관리비서관실은 모두 20개의 업무 기능과 관련하여 기록을 생산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의 공통업무(지시사항 관리, 교육훈련, 예산회계, 민원관리, 서무)와 미분류, 탄핵심판,³⁾ 도서실 운영,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주로 표 우측에 있는 업무는 제외하고, 좌측의 굵게 표시된 고유업무 기능과 관련해서 생산된 기록들이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다. 【대통령행사 기록 수집관리】에 대통령행사 기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기록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국정 말씀록 관리】, 【개별업무시스템 말씀록DB】, 【기록물 수집 이관】, 【기록물관리 점검 교육】, 【기록물정리 서고관리】,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등에서도 대통령행사와 관련된 기록의 생산 맥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들이 확인된다. 또한 e지원시스템의 특성상 e지원문서관리카드, e지원일정, e지원일지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이 존재한다. e지원시스템의 특성상 e지원일정, e지원일지에도 관련 기록 건들이 첨부되어 생산·등록되기 때문인데(곽건홍 2019, 22-23) 향후 동일한 사안의 기록 건에 대한 ‘논리적 연계’ 등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⁴⁾

〈표 2〉 【대통령 행사기록 수집 관리】의 분류 계층과 기록철건 현황

단위과제	기록철명 및 번호	기록 건 수량
대통령 행사 동영상 자료 디지털화	대통령 행사 동영상 자료 디지털화 1010211000000008	32건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관리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관리 1010211000000012	1,277건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관리 1010211000000070	8건

3) 【탄핵심판】 기록은 『탄핵심판사건자료집 I, II』(간행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비전자 기록의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서 e지원일정과 e지원일지에 첨부파일로 올려서 해결하려는 방안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표 2〉는 【대통령 행사기록 수집 관리】의 하위 분류, 곧 단위과제-기록철-기록건-세부 기록건 에서 ‘단위과제-기록철’의 구조와 기록건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과제와 이름이 같은 3개의 기록철과 1,317개의 기록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행사 동영상 자료 디지털화》(10102110000000008)은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 수행 제안서’ 등과 같은 기록 건들이 대부분이다.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관리》(1010211000000070)은 거의가 ‘대통령 행사자료 수집현황’과 같이 e지원일지를 통해 월별의 수집현황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수집현황에는 기록배석 건수, 행사계획, 친필메모, 말씀참고자료, 보고자료, 국무회의 의안 등의 건수와 쪽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식적인 연설문 외에 대통령 행사기록의 유형을 추측할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정책성’ 기록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 행사기록 수집 관리】 중에서 기록 건(1,217건)이 가장 많으며 대통령 행사기록의 기록화 확대와 관련한 주요 기록들이 있는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관리》(1010211000000012)를 중심으로 기록관리비서실의 대통령 행사기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등록유형으로 보면, e지원일지(678건, 53%)와 e지원일정(582건, 46%)이 대부분이며, e지원문서관리카드로 생산된 기록 건(17건)은 1%에 불과하다.⁵⁾

2) 대통령 행사의 동영상 기록화 관련 기록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관리》는 기록건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회의의 동영상 기록화 방식을 개선하는 기록,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시의 대통령 행사기록의 충실화를 위한 기록 수

5) 참여정부기 대통령 행사 기록화 확대와 관련한 유의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록철은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관리》(1010211000000012)의 e지원문서관리카드로 생산된 기록이다.

집을 개선하는 기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부처 업무보고(각종 국정위원회 포함) 등 대통령이 주재·참석하는 회의와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 기록의 충실화, 회의 영상의 기록화(디지털회의 영상 기록화)와 관련한 논의 배경과 과정, 주요 결정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동영상 기록화 개선 방안 관련 기록

기록철명 및 번호	생산일자	기록유형	기록건명 및 번호(기록 세부 건 번호)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관리 101021100000012	2006.4.12	문서카드	‘디지털회의’ 기록방식 개선방안 보고-2 1010211100006034(101021110000603400000500)
	2006.4.17	일지	‘디지털회의’ 동영상 기록을 위한 시뮬레이션계획(안) 1010211100007143(101021110000714300000200)
	2006.5.22	문서카드	‘디지털회의’ 동영상 기록을 위한 시뮬레이션계획(안) 1010211100006032-101021110000603200000500
	2006.6.8	문서카드	‘디지털회의’ 동영상 기록을 위한 시뮬레이션 세부계획(안) 1010211100006038-101021110000603800000200
	2006.6.30	문서카드	디지털회의 영상 기록 개선을 위한 1차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1010211100006046-101021110000604600000500
	2006.7.4	문서카드	디지털회의 영상 기록 방식 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1010211100006044-101021110000604400000200
	2006.7.14	문서카드	디지털회의 동영상 기록 방식 개선 업무 보고 1010211100006033-101021110000603300000200
	2006.7.27	문서카드	디지털회의 동영상 기록 방식 개선 사업 추진 계획 1010211100006049-101021110000604900000200
	2006.10.24	문서카드	‘디지털회의’ 동영상 기록 자동화 시스템 구축(안) 보고 1010211100006050-101021110000605000000800
	2007.1.31	문서카드	‘디지털회의’ 영상 기록시스템 설치 결과 및 향후 계획 1010211100006047-101021110000604700000500
	2007.2.13	문서카드	‘디지털회의’ 영상 기록시스템 설치 현황 및 계획 보고 1010211100006037-101021110000603700000800
	2007.2.22	문서카드	‘디지털회의’ 영상 기록시스템 설치 현황 및 계획 보고 1010211100006029-101021110000602900000800

〈표 3〉은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관리》 중에서 대통령이 주재·참석하는 회의의 동영상 기록 방안과 관련한 e지원문서관리카드 14건

과 e지원일지로 생산된 1건의 목록을 생산일자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2006년 4월 17일자로 생산된 <‘디지털회의’ 동영상 기록을 위한 시뮬레이션계획(안)>은 같은 해 5월 25일에 e지원문서관리카드로 보고된 동일한 제목을 가진 기록 건의 ‘초안’이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정 시점까지의 조사 결과를 취합하거나 또는 정책을 구상·보고하는 과정에서 ‘초안’이나 ‘저본’에 해당되는 기록들이 e지원일지에 첨부되어 남겨진다.

<표 3>에서 제시된 기록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비서실에서는 늦어도 2006년 3월 시점에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주재하는 주요 회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그때까지의 기록 방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곧 보도지원비서관실 영상팀이 1대의 카메라로 전체 화면 또는 발언자를 중심으로 촬영해서 비서실내 생중계하는 방식이 ‘디지털 회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차례의 비서실장 직속실 회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통령 영상기록’의 확대를 목표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통령 행사가 시작 부분만 촬영될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회의나 관계장관회의 등 주요 회의들도 동영상으로 기록화되지 못하는 현황을 함께 정리해서 보고하였다.

둘째, 그 결과 우선 “향후 디지털·영상 세대들의 효율적 기록 활용을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기록의 방식도 발전되어야”한다는 인식하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진행되는 국정과제 회의(‘건축문화 건설기준 선진화 방안 보고’)를 대상으로 두 가지 방식의 기록화 방안을 시험해 볼 것을 결정하였다. 곧 K-TV의 중계카메라 4대와 촬영 인력을 활용하여 기록하는 방안과 회의실에 무인카메라 4대를 고정 설치하여 기록하는 방안이었다. 이 시뮬레이션 계획은 5월 26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되었는데, “취지에 공감하며 협의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6월 8일에는 두 가지 방식의 기록 방안 중 K-TV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하는 방안은 기존 세종실 행사를 K-TV에서 입체적 방식으로 기록한 화면으로 대체 평가하도록 하고, 무인 카메라 설치를 통한 기록 방안의 경우만 2차례의 회의를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세부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후 6월 30일과 7월 3일에 각각 개최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대상으로 촬영된 동영상 기록에 대해 인터넷 중계 시청자들의 평가 과정을 거쳤다. 발언자 화면이 지연되거나 배석자 중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촬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보고서 화면의 크기와 명도 문제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지만, 보고서 화면의 제공 등 회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관리비서실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동영상 기록화를 위한 무인 카메라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세종실에 설치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여민1관 대회의실에 추가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마침 9월 핀란드에서 개최된 ASEM 회의에 참석했던 대통령은 회의장에 설치된 음성인식 자동촬영 방식의 기능이 장착된 '자동 영상회의시스템'을 주목하였고, 9월 20일 이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이미 결정된 디지털회의 동영상기록시스템 설치에 대한 재검토 추진을 지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핀란드 ASEM 회의장에 설치된 카메라와 동일한 시스템 장비로 대통령 전용 1대, 전체화면용 1대, 발언자용 4대 등 모두 6대의 음성인식 카메라와 운영(제어) 시스템이 청와대 세종실에 설치되었다. 최초의 동영상 기록화 개선 방안이 '수동 방식'을 중심으로 한 발언자를 촬영하는 무인 카메라 4대의 설치 방안이었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롭게 추진된 방안은 마이크 전원이 켜져 있는 참석자 중에서 실제 발언자를 자동으로 촬영하는 음성인식 기능이 장착된 '자동

촬영 방식'의 카메라 6대와 운영(제어) 시스템 설치였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회의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른 회의 영상의 새로운 기록화 방안은 이처럼 대통령의 전면적인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006년 12월 청와대 세종실에 설치되었다. 2007년 1월 31일자 '향후 계획'에 의하면, 세종실에 새롭게 설치된 '디지털회의'영상 기록시스템으로 생산된 동영상은 회의의 전체 장면을 별도로 기록하여 회의 내용을 누락 없이 기록할 수 있고, 회의 내용이 DVD나 DVCAM으로 동시 녹화되어 별도의 디지털화가 불필요하며, 검색에 용이한 '동영상 책갈피'기능 등을 갖춘 것이었다. 이후 기록관리비서실에서는 2006년 12월 26일의 국무회의(제56회)와 2007년 1월의 세종실에 개최된 5차례 행사 동영상을 모니터링하고, 하나의 화면에 복수의 발언자(토론자) 등을 2개의 화면으로 편집, 기록할 수 있는 기능까지 보완된 영상기록시스템을 2007년 5월 1일부터 여민1관 대회의실에 추가 설치, 운영하였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대통령 행사기록 중에서 청와대 세종실(2007년 1월부터 촬영된 것)과 여민1관 대회의실(2007년 5월부터 촬영된 것)에서 개최된 대통령 행사 동영상 기록은 현재 '시청각 기록'으로 정리, 별도 관리되고 있다.(대통령기록관 2013, 86-94) "시청각 기록물로는 대통령이 참석하였던 행사의 시작과 끝 뿐 아니라, 행사 중간의 중요한 순간들이 기록화되어 이관되었다."는 당시 담당자의 평가에서 대통령 행사 동영상 기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대통령기록관 2013, 43) 문제는 이 행사 동영상 기록 뿐만 아니라 4장에서 후술하는 '말씀록' 생산 과정에서 수집된 녹음 테이프나 미니 디스크 등의 '시청각 기록'들에 대해서도 상세 기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록철 단위(대통령기록관은 '파일'), 곧 '연도별-월별'의 기록 계층과의 연계 정보까지는 기술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말씀록'의 '원본'으로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대통령기록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행사기록’의 전체적 생산 맥락에 따른 연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록건에 대해 상세 기술을 작성하고 제공하려는 일련의 ‘계획’ 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3) 대통령 순방 기록의 기록화 관련 기록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관리》(1010211000000012)에는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수행한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에 생산되는 기록을 ‘빠짐없이 생산·수집’하기 위한 업무 활동 관련 기록들이 있다.

〈표 4〉 대통령 순방 기록의 확대 추진 기록

기록철명 및 번호	생산일자	기록유형	기록건명 및 번호(세부 기록건 번호)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관리 1010211000000012	2006.1.25	문서카드	해외 순방 및 기타 국제행사 기록 수집 계획(안) 1010211100006045
	2006.8.17	문서카드	해외 순방시 대통령기록 수집 확대 방안 1010211100006030-101021110000603000001100
	2006.10.20	문서카드	2006년 9월 순방 행사 자료 수집 분석 보고 1010211100006048-101021110000604800000500
	2006.11.9		2006년 9월 순방 행사 자료 수집 분석 보고 1010211100006048-101021110000604800000700
	2006.11.15		06년 9월 순방 행사 기록 수집 현황 보고 1010211100006048-101021110000604800000900
	2006.11.15		06년 9월 순방 행사 기록물 수집현황에 대한 검토 1010211100006048-101021110000604800001100
	2007.3.12. 3.13.12.12	문서카드	대통령 내외분 스페인·이탈리아 순방 기록전담자 수행 평가 1010211100006035-10102111000060350000200
	2007.4.9. 4.11.14.48	일지	카라반 행사 기록물 수집 협의-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순방 1010211100007132-101021110000713200000200

〈표 4〉는 이 중에서 동영상 기록화 개선 방안과 관련된 기록을 제외

한 e지원문서관리카드 4건과 e지원일지 1건의 기록 정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에서는 e지원시스템에서 e지원문서관리카드로 생산된 기록 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곧 문서관리카드를 통해 기록을 생산할 때, 이미 특정의 문서관리카드 형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사안일지라도 결재권자의 검토의견 제시나 지시 등과 관련하여 내용상 수정이나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이거나, 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력 관리나 결재권자의 동일 사안에 대한 비교 검토상의 편이성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동일한 문서관리카드를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진다. 《06년 9월 해외 순방 자료 수집 분석 보고》(10102111000006048)라는 제목의 기록 건에 포함된 4건(세부 기록건)의 존재 유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10월 20일부터 일련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1월 15일에 최종 검토안이 보고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미 앞절에서도 언급했듯이 e지원일지라도 중요한 기록 건이 생산, 보고된다는 점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 제시된 기록들을 내용적으로 보면, 2006년 8월을 시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대통령 해외 순방 기록의 수집 현황 분석에 기초한 관련 기록의 ‘생산·수집의 개선 방안’ 기록과 그 이후 2006년 9월~2007년 3월까지의 대통령 순방 지역별로 행사 기록에 대한 ‘수집 현황 분석’을 통해서 ‘기록 수집 활동’을 지속 독려하는 기록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대통령 순방 행사 기록의 ‘생산·수집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록 관리비서관실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와 관련된 기록 생산·수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분명하게 부여’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제1부속실 등이 기록을 생산·수집하고 사후적으로 이관해 온 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녹음과 수기 기록을 동시에 생산·결합하도록 한 ‘대통령 말씀기록 생산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기록’의 생산 자체도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해외 순방별의 생산·수집 건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해외순방 수행자 중에서 기록 생산과 수집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록 생산과 수집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실무자의 ‘대통령 말씀기록 생산 매뉴얼’에 대한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셋째, 순방이 종료된 후에는 빠짐없이 기록관리비서실로 이관하고 ‘환담 자료’(안보정책실에서 하이퍼 링크를 이용, 순방 관련 전체 자료를 ‘set’로 보고하는 자료)와 ‘말씀참고자료’ 등 대통령에게 행사 이전에 보고하는 ‘행사기록’도 e지원문서관리카드로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6년 8월 17일자 의 <해외 순방시 대통령 기록 수집 개선 방안>(세부 기록건)에 의하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생산되는 중요 기록의 유형으로는 ‘대통령 말씀기록(녹음), 행사자료, 친필메모, 산업시찰 스케치’ 등이다. 이를 ‘순방 전-순방 중-순방 후’의 시기별로 생산되는 상세한 기록 유형은 <표 5>와 같다.

<표 5> 대통령의 해외 순방행사 관련 생산 기록 유형

활동 순서	순방 행사 관련 생산되는 기록 유형
순방 전	사전답사 보고서(의전), 해외순방 자료집(보도지원), 행사별 세부계획서(책자형, 외교부 작성, 의전 배포)
순방 기간	행사 녹음 기록, 전체 행사 시나리오, 친필 메모, 말씀 카드, 환담 자료, 기자회견 등 예상 질의 답변서, 보조자료 및 말씀 참고자료, 모두 말씀 등 연설문, 기타(식순 및 좌석배치도 등) ※ 순방 기간 중 업무관련 보고문서 등 - 국내언론 보도 분석, 해외언론 보도 분석, 국내 상황 보고서 등
귀국 후	성과 보고서(외교부)

해외 순방 기간의 대통령 행사기록의 충실한 기록화를 위한 ‘방안’은 처음에는 기록물관리 전담부서의 순방시 동행 방안을 전제로 작성되기도 했지만, 여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끝에 순방 수행자 중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련 행사 기록을 수집하는 것으로 되었다. 2006년 9월 이후

기록관리비서실은 대통령의 ‘순방 지역별’로 행사기록의 수집 현황 분석과 평가 방식을 통해서 ‘충실한 수집’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의 <표 6>은 이와 관련된 기록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지역별’ 행사기록 수집 독려 관련 기록

기록건 명 및 세부 기록건 번호	순방기간 및 국가(주요행사)	순방 기록 성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
06년 9월 순방 행사 기록물 수집현황에 대한 검토 101021110000604800001100	2006.9.3.~9.16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ASEM, 미국	·관련 비서실(안보정책, 제1부속실)과 사전협의, 역할분담 등으로 기존 보다 수집 기록의 유형과 건수 증가	·녹음기록 중 발언자 실명 등 누락으로 기록의 충실성 결여 ·순방 관련 보고되는 전자기록물 수집 미흡
대통령내외분 스페인-이탈리아 순방 기록전담자 수행 평가 101021110000603500000200	2007.2.11.~2.17 스페인, 이탈리아	·전체(24건) 행사 중 16건 행사에 기록전담자 배석으로 ‘현장성있는’ 요약 작성 성과 ·기록전담자 배석 못한 행사에 배석한 행정관 등 통해 구술방식 기록 생산	·외교부, 1부속실, 경제, 안보수석실 간 네트워크 미비로 수집기록 중 합에 한계 노정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순방행사 생산량 부족
카라반 행사 기록물 수집 협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순방 101021110000713200000200	2007.3.24.~3.30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각 부서별 기록전담자 지정, 사전협의로 기록 수집 성과 ·전체(20건) 주요행사 중 16건의 녹음기록 확보 ·사우디 정상회담 제외한 답변 행사의 현장 자료 수집	·현장 상황에 따른 배석 결정으로 기록전담자의 주요행사 배석이 어려 현장 자료 수집이 어려움 ·‘여사팀’ 행사 기록 수집 위해 기록전담 인원 지정 필요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행사기록-해외 행사’는 해외 순방시 대통령 행사기록의 기록화에 대한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업무 활동 결과물로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기록관은 ‘전자기록-비전자기록’의 관련 기록 정보를 제대로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써(대통령기록관 2011a) 전혀 별개의 기록시리즈로 ‘분리’

시키는 듯한 잘못된 기록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곧 대통령 행사기록을 기록관리비서실의 업무 과정과 연계한 앞에서 서술한 생산 맥락 정보 등을 기술 단위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대통령기록관 2011b) 기록건 단위는 물론 기록건의 상위 계층 단위에서의 기술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참여정부 대통령 행사기록 전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맥락적 이해를 ‘가로막는’ 의도치 않은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다. 참고로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철·건의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해외행사’는 모두 469철이다. 이 중에는 2007년 10월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록(‘10철-31건’)이 있어서, 남북 분단의 엄혹한 현실이 기록 분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한다.

3. 기록관리비서관실의 대통령 행사기록 정리와 의미

기록관리비서관실이 2006년 8월 시점에서 《해외 순방시 대통령기록 수집 확대 방안》 보고를 통해 ‘대통령 행사기록’으로써 ‘해외 순방 기록’의 생산과 수집의 중요성을 제기한 데에는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록관리 업무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던 제도적 변화라는 배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곧 기록관리비서관실은 2005년 4월에 명칭을 변경하면서 종전의 ‘통치사료’-‘국정기록’이라는 일부 기록을 ‘제한적으로 관리’했던 조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기록관 업무’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 행사기록의 수집(이관), 정리 등에서 일정한 업무 성과들을 축적,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2005년 하반기에 추진된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기록정리사업은 ‘역대정부 중 최초로 대통령 임기 중에 주요 대통령기록을 수집·관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2004년까지의 대통령비서관실의 기록 목록을 파악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정리하는 과

정에서 ‘대통령기록의 범위’ 설정을 위해 각 비서실의 의견을 취합·조정하는 한편 대통령의 친필 메모,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의 회의기록, 대통령 행사기록(행사진행 기록, 보고자료, 친필메모, 대화내용 등), 대통령 보좌진의 주요 정책보고서 및 주요 정기보고, 대통령 영부인의 행사기록 등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⁶⁾ 2005년 9월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록이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기록을 남기고 후세가 판단할 문제”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은 기록관리비서실의 기록관 업무 수행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노무현은 “장관의 발언도 다 기록해 정책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⁷⁾

기록관리비서실은 기록정리 사업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 현황’을 조사·보고하는 한편으로 2006년 이후의 대통령기록 수집과 정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비서실의 기록관리 전담부서로서 ‘기록관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⁸⁾ 그리고 기록관리비서실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단위과제별 업무 편람(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기록관리비서실의 **【대통령 행사기록 수집 관리】**와 관련된 생산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의 기록관리 혁신 업무 추진 과정, 곧 기록관리비서실을 중심으로 추진된 **【기록물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과 **【기록물관리 점검, 교육】**, **【대**

6) 《기록관리 제도개선 점검》(101021100000027) - 《대통령지시사항(기록관리홍보) 이행점검》 - 〈국가기록관리혁신 홍보 아이템, 대통령기록정리사업 05.11.17〉(10102110001079100001800)

7) 위와 동일한 기록철·건 하위의 세부 기록건 〈기록관리혁신 홍보관련 - 청와대 브리핑 게재기사 협의〉(10102110001079100002000)

8) 《대통령기록의 수집·정리 방안(2006.1.3.)》의 세부 기록건 〈2006년 이후 대통령 기록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검토〉(10102110001086300000600)과 《정상외교 기록물 수집 매뉴얼작성 및 수집 참고자료》의 세부 기록건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 현황 조사 보고(05.12.28)〉(10102110001090200000500) 참조. 모두 **【기록물관리 제도 개선 점검】** 업무의 기록철·건들이다.

통령 국정말씀록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들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업무 기능 간의 내적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대통령 행사기록들의 연관 정보를 정리,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 장 전반부에서 【기록물관리 혁신 점검, 제도 개선】 기록을 통해 기록관리비서실의 적극적인 기록정리 업무 배경을 살펴보았으므로, 여기부터는 【기록물관리 점검, 교육】 기록을 통해서 대통령 행사기록의 정리 내용을 정리한다.

〈표 6〉 【기록물관리 점검, 교육】의 기록철 개요 및 중요 기록건

업무기능	단위과제	기록철명 및 번호	기록건의 유형(건수)
기록물관리 점검 교육	비서실 기록관리 점검	비서실 기록관리 점검 (1010211000000006)	기록관리기준 운영 실무회의, 비서실의 기록 관리 실태점검, 혁신 평가점검(141)
	부서업무 매뉴얼 작성	부서업무 매뉴얼 작성 (1010211000000018)	기록관리비서실의 단위과제별 업무 편람 작 성,수 정, 운영(42)
	중요 기록건 《2005년 부서 업무 매뉴얼 작성 현황 종합 보고》 (1010211100009042)(세부 기록건 30)		
	비서실 기록관리 점검	비서실 기록관리 점검 (1010211000000068)	각 비서실의 기록관리 평가 방안, 기록관리 교육 실시 현황(3)
	부서업무 매뉴얼 작성	부서업무 매뉴얼 작성 (1010211000000075)	기록관리비서실의 업무 매뉴얼 작성, 수정, 운영(12)
중요 기록건 《기록관리비서실 업무 매뉴얼 종합 보고》 (1010211100013170)(세부 기록건 26)			
기록물관리	전자적 기록물관리 (1010211000000097)	신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정 부부처의 RMS 기능 구축 업무 협의(63)	

〈표 6〉은 기록관리비서실의 주요 업무 기능으로 분류된 【기록물관리 점검, 교육】의 5개 기록철의 개요 및 중요 기록 건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기록관리비서실의 경우 기록을 생산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의 단위과제에 하나의 기록철로 분류·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부서업무 매뉴얼 작성》(1010211000000018)과 《부서업무 매뉴얼 작성》(1010211000000075)은 각각 36개와 26개의 세부 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⁹⁾ 거의가 대통령의 행사와 관련한 기록들의 생산

과 관리 등의 맥락적 이해에 매우 중요한 기록관리비서실의 주요 업무별 매뉴얼들이다.

이에 의하면, 기록관리비서실은 2005년 1월 말 ‘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업무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18일에 업무 매뉴얼 작성이 비서실 공통 혁신과제로 선정되면서 추가 작성할 업무 매뉴얼까지 다시 논의하여 연말에는 모두 13개의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였다.(〈2005년 부서 업무 매뉴얼 작성 종합 현황 보고 05.12.16〉)

이 중에서 대통령 행사기록 수집과 관련된 ‘행사자료 수집·정리 매뉴얼’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비서실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계획, 말씀참고자료, 보고자료, 연설문(말씀자료), 친필메모, 배석시 기록한 기록수첩 등을 수집하여 정리, 관리한다.¹⁰⁾ 둘째, 행사자료는 친필메모 → 행사계획(식순, 배치도, 차림표, 행사개요 등) → 말씀참고자료(연설문, 말씀자료, 약력 등) → 보고자료(PPT자료, 책자, 팸플릿 등) 순으로 정리한다.¹¹⁾ 셋째, 위와 같은 순서로 정리된 자료는 행사별로 투명화일에 넣고, 이를 다시 종이 화일에 끼워 문서보존상자에 넣고, 현용단계에서의 활용 기간(4~6개월)이 지나면 문서고로 옮겨서 보관한다.

또한, 대통령 행사기록은 2003년까지는 기록 유형별로 관리되다가 2004년부터 행사별로 수집(이관), 정리, 관리되었으며, 말씀록 테이프와 같은 시청각 기록 유형은 물리적으로 별도 관리했다고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행사 기록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기록관리비서실의

9) 기록관리비서실이 수행하는 업무별 매뉴얼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많은 세부 기록건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2005년 부서 업무 매뉴얼 작성 종합 현황 보고》는 13종류의 업무 매뉴얼과 2건의 종합 현황 보고 파일, 곧 15건의 워드 형식 파일과 15건의 PDF를 합친 30건의 세부 기록건이 존재한다.

10) 처음에는 ‘통치사료시스템’을 사용해서 수집된 행사자료를 관리하다가 ‘행사자료관리대장’(엑셀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1) 국무회의 자료는 친필메모 → 행사계획 → 말씀참고자료 → 안건자료 → 보고자료 순으로 정리한다.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통령 말씀록 작성’에 필수적이다. 곧 녹음 기록과 수기 기록의 ‘결합’을 통해 행사 과정의 ‘풍부한’ 기록화를 지향한 것이다.

2007년 11월 14일에 생산된 《기록관리비서실 업무 매뉴얼 종합 보고》의 세부 기록건 〈대통령비서실 기록 정리 및 이관 매뉴얼: 기록정리 및 서고관리 매뉴얼〉(10102111000001600)에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기록을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생산된 ‘대통령 행사기록’(해외 순방 기록 포함), 대통령 비서실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하는 ‘업무수행 기록’, 대통령 대면보고서(국정과제에 관한 지시 등을 포함한 기록으로 제1부속실에서 이관받은 기록), 외교친서(대통령-외국 정상들과 주고받은 공식외교서한), 대통령 상징물(행정박물류 포함)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서 대통령 행사기록을 ‘행사별’로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 ‘사진 자료’를 활용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 행사기록의 공개 분류 기준도 〈표 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7〉은 기록관리비서실이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을 앞둔 시점에서 각 비서실에 일정한 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정리 및 이관 매뉴얼: 기록정리 및 서고관리 매뉴얼〉에서는 기록관리비서실의 대통령 행사기록 정리와 관련한 당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우선 외교안보통일 분야 회의의 경우에는 말씀참고자료, 회의자료, 보고자료 등도 모두 비밀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외비 표시나 비밀기록의 예고문이 기재되지 않은 채 이관되는 경우가 많아 ‘비밀 지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둘째는 대통령 행사기록과 말씀록, 말씀록 테이프, DVD, 사진류 등을 통합적으로 목록 작성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보도지원비서실에서 사진류와 동영상류를 이관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셋째는 현장메모 수첩이나 행사 참석자 명표 등도 대통령 행사기록과 물리적으로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표 7〉 대통령 행사기록 정리시 공개 기준 사항

자료 유형		공개 여부	보호 기간	행사 유형
개인기록물		개인		말씀록에서 개인기록물로 지정된 기록의 행사자료
행사계획서	시나리오 배치도 식순	부분공개	차차기	대통령님 동선은 비공개 (차차기)
	참석자명단 식단 행사계획서 의사일정표	공개		공개행사의 시나리오는 공개 임명장수여식, 국무회의, 공개오만찬, 부처업무보고, 접견, 현장방문, 기자회견 등
행사계획서		비공개	차기	비공개 오만찬, 접견, 언론회견준비보고 등 비공개행사, 수석보좌관회의, 국정과제회의 등 개별 또는 비공개 행사, 수석보좌관회의 등 식순에 회의 안전명이 있는 시나리오
친필메모		비공개	차기	각종 회의, 오만찬 등에서 대통령님 친필메모
말씀 참고자료	말씀참고자료	비공개	차기	각종 회의 및 행사의 대통령 말씀참고자료
		3급비밀	차차기	수석보좌관회의
	이력카드	비공개	차차기	외교안보통일 관련 회의 및 행사 관련 자료 임명장수여식, 접견 시 개인 신상에 대한 이력카드
연설문	연설문	공개		공개행사의 연설문
	영상메시지			
	연설문 초안	비공개	차기	연설문 작성을 위한 준비 회의시 연설문 초안
의안		공개		국무회의 의안으로 법령 관련한 안
보고자료		공개		현장 방문 및 외부 행사시 홍보자료 및 홍보물
보고자료		비공개	차기	부처업무보고 준비회의, 국정토론회
			차차기	수석보좌관회의, 기획조정회의
	3급비밀			외교안보통일 분야 회의
보고자료		공개		공개행사(토론회, 선포식, 영상메시지 협조문, 국정과제회의 등)의 부처 보고서
		비공개	차기	부처업무보고, 국무회의, 국정과제회의, 언론회견준비회의 등의 각 부처 보고자료
			차차기	장관보고 및 관계 장관 회의 등 비공개 보고
	3급비밀			외교안보통일 분야 회의
보고자료		3급비밀		접견, 회담, 기자회견의 말씀기록
현장메모 수집				

※ 매뉴얼에 표현된 <표 7>의 원 제목은 ‘대통령 직무기록 정리시 주의사항’인데, ‘개인기록물’과 ‘의안’을 제외한 대부분이 대통령 행사기록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수정하였음.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한 업무 환경이 야기하는 슬한 ‘어려움’ 속에서 수행된 기록관리비서실의 적극적인 ‘기록관 업무’ 수행 결과, 수집·정리된 대통령 행사기록은 2008년 2월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행사기록-국내행사’는 기록관리비서실의 대통령 행사기록의 적극적인 수집과 기록정리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이 또한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04철의 ‘비전자문서’는 행사별로 정리된 대통령 행사기록으로 대부분 2건 이상의 기록들이 모아진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았으나 가장 많은 경우 22건이나 된다.(대통령기록관 2011a, 3-63)¹²⁾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의 생산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해당 기록의 특성에 기반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앞장에서 제기한 ‘전자기록-비전자기록’의 관련 기록정보의 연계 제공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에는 특히 ‘대통령 행사기록-국내행사’와 다음 장에서 서술하는 ‘대통령 말씀록’ 만큼 적합한 기록 사례도 없을 것이다.

4. 기록관리비서관실의 ‘말씀록’ 생산과 관리

1) ‘개별업무시스템 말씀록DB’와 대통령 국정말씀록 관리

【개별업무시스템 말씀록DB】(이하 【말씀록DB】)은 대통령 행사의 ‘연

1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행사기록과 관련해서 목록집과 기술서집에서 각각 다른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목록집에서는 업무기능(연도별-월별)-기록철(각 행사명)-기록 세부건으로, 기술서집에서는 국내행사와 해외행사를 대통령행사 시리즈의 하위시리즈로 분류하고, 그 하위에 ‘연도별-월별’의 파일 단위로 분류하고 있다.

설기록, 기념사, 각종 축사 등' 녹음 기록을 바탕으로 기록관리비서실 '말씀록작성팀'이 생산한 '대통령 말씀록(전문)' 중에서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국정과제회의 등에서 공개 가능한 것을 선별·가공하여¹³⁾ e지원시스템 내 개별업무시스템인 말씀록DB에 등록한 2003년 2월~2008년 1월까지의 60개월 동안의 '말씀록 모음'이다. 《연도별·월별》 형식의 기록철 58~60개와 약 1,100건의 기록건이 존재한다.¹⁴⁾ 대부분의 기록철에는 20개 내외의 다양한 유형의 대통령 행사와 관련한 '말씀 기록건'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건이 가장 많은 《2005년_03월》에는 모두 36건의 기록건이 들어 있다. 취임 직후인 《2003년_03월》과 《2003년_04월》, 《2003년_08월》, 그리고 퇴임 직전의 《2008년_01월》 기록철로 각 3건이다.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2004년_03월》, 《2004년_04월》, 《2004년_05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씀 기록' 27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임 첫해인 2003년에는 전체적으로 월별 기록건이 5건 내외인 특징을 보인다. 【대통령 국정말씀록 관리】(이하 【국정말씀록 관리】)는 이러한 【말씀록DB】을 구축하고 그 기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업무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말씀록DB】의 생산 맥락 이해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표 8〉은 【국정말씀록 관리】의 기록철·건 현황과 주요 기록건 유형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 기록건(6,159) 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건(1,158)은 20% 미만이며, 내용적으로 유의미한 e지원문

13) 여기서 '가공'의 의미는 '거친 표현'이나 '정무적 고려' 등의 이유로 해당 비서실에서 검토·수정한 정도를 뜻한다.

14)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록 목록에는 1,102건이 존재하나 실제로 기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2003년_2월》의 5건과 《2003년_7월》의 30건의 누락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실무 차원의 단순한 착오인지, 실제 기록건 자체가 부존재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기록 건은 HTML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국정말씀록 관리】의 기록철·건 개요

기록철명 및 번호	기록 건수	주요 기록건 유형
대통령국정말씀록 작성 1010211000000011	5,022	대통령 영상기록(디지털회의 기록방식) 개선 방안 대통령말씀록 교정업무 관련 매뉴얼(안) 작성 대통령 말씀록 외국어 번역 사업 계획안 등 기록수첩 표제부 양식 개발
대통령 말씀 원문 타 비서실 제공 1010211000000013	110	원문 제공 현황(주간/월간) 보고 등
대통령 말씀DB시스템 운영 1010211000000014	407	e지원 ‘대통령말씀DB시스템’ 확장사업 진행상황 과 향후 계획 대통령말씀DB시스템의 운영매뉴얼, 사용자매뉴얼 대통령말씀DB시스템 관련 회의
대통령국정말씀록 작성 기준 협의 회의 운영 1010211000000019	528	맞춤법 학습회의 자료, 주례학습 및 금요학습 회 의 등
대통령 말씀 DB시스템 운영 및 원문 제공 1010211000000029	21	대통령말씀DB시스템 운영 월별 진행상황 대통령말씀록 원문 교부 월별 통계 등
대통령국정말씀록 작성 1010211000000071	28	교정업무 성과 극대화 위한 점검관리 계획 초안작성 및 교정, 교정업무 보고 등
대통령 말씀 DB시스템 운영 및 원문 제공 1010211000000083	13	대통령말씀 분류 관련 계획(안) 퇴임후 이지원 말씀록 및 분류자료 관리 방안(요 약)

서관리카드로 생산된 기록이 많지 않다. 여기에서는 〈표 8〉에서 제시한 기록철 중에서 ≪대통령 말씀DB시스템 운영≫(1010211000000014)과 ≪대통령 말씀DB 시스템 운영 및 원문 제공≫(1010211000000083)의 주요 기록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록들이 【국정말씀록 관리】와 【말씀록DB】의 생산 맥락과 상호 간의 내적 관련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표 9〉와 〈표 10〉은 각각 ≪대통령 말씀DB시스템 운영≫과 ≪대통령 말씀DB 시스템 운영 및 원문 제공≫의 주요 기록건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대통령 말씀DB시스템 운영》의 주요 기록건

기록건명(번호)	생산일자	비고
대통령 말씀D/B 시스템 관련 업무보고(1010211100007439)	2005.7.27	
대통령 말씀D/B 시스템 보안관련 - 접근권한 관리방안 (1010211100007426)	2005.8.9	
'대통령 말씀D/B 운영지원 T/F' 회의 자료(1010211100007424)	2005.8.16	
'대통령 말씀D/B 운영지원 T/F' 회의 결과(1010211100007423)	2005.8.17	
e지원 「대통령말씀DB시스템」 확장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1010211100007440)	2005.11.16	
연간 업무 보고 - e지원 「대통령말씀DB시스템」 확장사업 (1010211100007417)	2005.12.16	
06년 '대통령말씀DB운영팀' 업무계획(1010211100007416)	2006.1.5	
'대통령 말씀DB 분류 세분화' 계획(안)(1010211100007422)	2006.2.8	
'대통령말씀DB시스템' 이관 계획(안)(1010211100007418)	2006.3.27	
말씀록 DB 운영 업무 조정 계획(1010211100007420)	2006.8.16	

〈표 10〉 《대통령 말씀DB 시스템 운영 및 원문 제공》의 주요 기록건

기록건명(번호)	생산일자	비고
대통령말씀DB시스템 현황보고(1010211100013257)	2007.7.27	
퇴임 후 e지원 말씀록 및 분류자료관리 방안 보고(07.8.9) 요약, 정리 (1010211100013259)	2007.8.10	
대통령말씀분류 관련 계획(안)(1010211100013254)	2007.9.6	

〈표 9〉와 〈표 10〉에 제시된 주요 기록 건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e지원시스템에 '말씀록DB'가 구축·운영된 것은 2003년 11월이었다. 처음에는 대비실 내 비서관급 이상자에 한정해서 대통령 말씀록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그 대상도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국정과제 회의, 기자회견 및 언론대담, 연설 등만으로 한정하였으며, 관련 비서실에서 각기 분류·입력하는 방식이었고 총괄 부서는 홍보기획비서실이었다.¹⁵⁾ 2005년 4월, 대비실 전 직원에 대한 공유와 등록 대상 확대

요구가 많아지자 ‘말씀록DB’를 확장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말씀록 원문의 신속한 업데이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비서실로 ‘말씀록DB 관리’ 업무가 이관되었다. 기록관리비서실은 2005년 8월 이후 유관 부서들과 함께 ‘말씀DB 운영지원TF’를 구성해서,¹⁶⁾ 등록 범위의 대폭 확대, 접근권한(보안) 개선, 말씀DB 분류기준의 세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2007년 7월 27일 현재, ‘말씀록DB’에는 기록관리비서실에서 생산한 말씀록 700건과 청와대 브리핑에 공개되어 있는 연설문, 편지, 기고 등 716건을 합쳐 모두 1,416건으로 확대 탑재되었다. 하지만 기록관리비서실에서 생산된 말씀록 2,285건은 ‘비공개회의’ 또는 ‘미완성’을 이유로 ‘말씀록DB’에 등록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8월 9일 2시간 동안 “퇴임 후 e지원 말씀록 및 분류자료 관리방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진행되었다. ‘말씀록DB’를 활용하여 분류체계를 보완하고 ‘말씀록(원문)’의 등록과¹⁷⁾ ‘전체보기’ 기능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다. 2007년 9월 6일자 ‘계획(안)’에 의하면, 10월 중으로 완성된 말씀록(2003년~2005년 생산분) 중 ‘말씀록DB’에 미등록된 1,180여 건

15)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의 《국정기록 주요정기보고》(1010211000000002)에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등의 대통령 행사와 관련한 ‘말씀록’ 40건(10102111000000012~10102111000000051)이 존재한다. 내용상으로는 【말씀록DB】의 말씀록 기록건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대통령국정말씀록’이라는 표제부 형식을 볼 때, 기록관리비서실의 말씀록작성팀이 생산한 ‘말씀록(전문)’ 기록건으로 보인다. 40건 중 《게시자의 알리는 말씀(1)》과 《게시자의 알리는 말씀(2)》라는 XML형식의 2건에 ‘제한적 공유와 열람’ 정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말씀록DB시스템’을 확장하기 이전의 ‘말씀록(전문)’ 기록건으로 짐작된다.

16) 이 TF는 경제정책수석실, 사회정책수석실, 업무혁신, 국정상황, 연설, 제1부속실, 대변인실, 홍보기획 등 담당자로 구성되었는데, 대통령말씀자료에 대한 요약본(회의결과)을 기록관리비서에 제공하고 오분류에 대한 수정과 내용 보완, 기타 참고자료 등록의 2차 분류, 말씀록DB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전체적인 스크린과 개선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17) ‘말씀록(원문)’이란, 기록관리비서실의 말씀록작성팀에 최종 완성한 ‘말씀록(전문)’의 ‘거친’ 표현 등 일부를 수정 가공한 말씀록을 뜻한다.

을 일괄 등록하고 2006년~2007년 생산된 말씀록 중 교정이 끝나서 완성되는 1,100여 건도 실시간으로 등록할 예정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통령기록관이 제공한 【말씀록DB】의 기록건은 최대 1,102건으로, ‘계획(안)과 같이 추가 등록되었다고 전제할 때 약 1,200건의 차이가 있다.¹⁸⁾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대통령 말씀록’은 최소한 ‘말씀록(전문)’과 특정 표현(거친 표현, 정무적 표현 등) 등 일부를 수정·가공해서 ‘대통령말씀DB시스템’에 등록(탑재)한 ‘말씀록(원문)’ 두 종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¹⁹⁾ 곧 기록관리비서실에서 최종 완성한 말씀록 중에서 ‘말씀록DB’에 선임행정관이 선별한 것을 ‘수정·가공’을 거쳐 등록하고, 연설·편지·기고 등은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된 ‘말씀’을 그대로 등록하였다. 이렇게 선별한 말씀록과 청와대 브리핑에 탑재된 ‘말씀’은 시스템상에서 ‘e지원 → 지식관리 → 대통령말씀 → 말씀관리 → 원문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였다.(2007년 7월 27일자 《대통령말씀DB시스템 현황보고》)

한편, ‘말씀록(전문)’을 ‘충실하게’ 생산하기 위한 기록관리비서실 ‘말씀록작성팀’의 업무 활동 기록들은 <표 8>의 《대통령국정말씀록 작성》(1010211000000011), 《대통령국정말씀록 작성 기준 협의 회의 운영》(1010211000000019), 《대통령국정말씀록 작성》(10102110000000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산한 ‘말씀록’을 다른 비서실의 업무 활동 지원을 위해 ‘교부’했던 《대통령 말씀 원문 타 비서실 제공》(1010211000000013) 기록도 확인하였다.

18) 2007년 9월 6일자 《대통령말씀분류 관련 계획(안)》 마지막 쪽에 있는 ‘참고. 말씀록 등록 및 주관부서 현황’이라는 표에 명시된 총 건수(3,151)와 기 등록수(1,034)를 비교하면 거의 2천 건의 차이가 있다. 또한 1부속실에서 수집했다는 ‘비공개 말씀록(비공개행사용)’의 ‘말씀록DB’ 등록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비전자기록으로 분류한 ‘대통령행사기록-국내행사에 ‘출력본’으로 함께 정리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지정’ 또는 ‘비밀’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 여기에서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통령 행사기록-국내행사에 출력본으로 함께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2) 대통령 말씀록의 특성과 활용

앞의 <표 8>에서 제시한 <<대통령국정말씀록 작성>>(1010211000000011)에는 ‘대통령 말씀록’의 생산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대통령 국정말씀록’의 작성 및 교정과 관련한 매뉴얼들이 존재한다. 이에 의하면, ‘충실한 기록화’를 위해서 행사 시작 전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하도록 하였다. 곧 “대통령이 특정인과 대화하며 입장하거나, 평소와 다른 표정·복장이거나, 참석한 특정인들과 개인적인 인사를 하거나” 등 행사 주제와 관련된 참석자들과의 대화나 의제는 물론 행사 당시의 분위기까지도 기록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시작이나 종료되는 시간에 대해 ‘1분 단위’로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행사 연월일(요일), 제목, 장소, 행사 시작전·행사중·행사종료 후의 특이사항, 행사 시작시간, 사회자(전체 행사자)의 소속·직위·성명, 참석자 중 불참자나 대신 참석자가 있을 경우나 중간에 입·퇴장자가 있을 경우 시간과 함께 기록하도록 하였다. 발언 내용 중 전문용어나 학술용어, 인명이나 단체명, 심지어 사투리까지 누락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대통령 말씀록은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청와대 내부와 외부의 경우는 경호실의 녹음 기록 테이프나 파일을, 음향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통령 행사의 경우에는 기록관리비서실 또는 제1부속실에서 배석하여 보이스 펜이나 미니디스크에 녹음한 것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비서실은 ‘충실한 기록화’를 위해서 대통령 행사 전에는 관련 행사와 관련한 자료, 곧 참석자의 명단과 좌석 배치표, 진행 시나리오, 보고자료 등을 취합하여 행사의 성격이나 진행 상황을 이해한 가운데 배석하여 기록하고자 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대통령 좌석에 남겨진 행사 자료나 친필 메모 등을 수집하여 말씀록을 생산하는 과정

에서 활용하였다. 그리고 말씀록 생산이 완료한 뒤에는 녹음 테이프와 미니 디스크는 문서고로 옮겨 보존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행사의 ‘충실한 기록화’를 위한 업무 결과물로써 【말씀록DB】의 ‘대통령 말씀록’은 우선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회의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국정과제위원회 등에서의 ‘토론 과정’과 ‘논의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정부 부처의 연두 보고만 하더라도 역대 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형식과 내용을 보여 준다. 이는 2004년 9월에 “업무보고는 목표관리, 성과평가를 기초로 한 보고여야 하며 정책과 혁신에 대해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혁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비실과 국무조정실은 2004년 10월 ‘부처비전-정책목표-이행과제-성과지표’라는 체인 구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두 업무보고 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방안에 의거해서 2005년 1월~4월까지 2005년도 연두 업무보고가 각 부처별로 진행되었다. 2007년에는 시행되는 「성과관리계획(전략계획, 시행계획)」에 맞추어 보고서 체계를 ‘임무 비전-전략목표-주요 성과목표-주요내용(성과지표)’으로 수정하고, 1차로 서면보고에 이어, 7개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업무보고’ 행사를 국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라는 주제로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하였다.(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7 정부혁신, 85-86) 회의 시작과 말미에 의례적인 ‘훈화’나 ‘격려말씀’ 차원의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정과제회의의 경우에는 참석자(발언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문제제기, 대통령과의 토론 내용들은 ‘시간을 들여서’ 숙독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대학이나 경제단체 등의 행사에서 행한 ‘대통령 특강’에도 대통령 행사기록으로써 ‘대통령 말씀록’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 초청 특강》(1010211100405262)은 2004년 5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의 ‘초청 특강’

내용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다. 학생들과의 질문 과정에서 '각본에 의한 진행'이라며 항의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학생의 '돌발적' 질의 상황과 답변 과정이 담겨 있다.²⁰⁾

《2004년 전경련 신춘 포럼 기조 강연》(1010211100405111)은 2004년 2월 4일에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말씀록'에는 '무대 배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PDP 화면에 '(강연) 참여 정부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라고 쓴 자막 상영)"이라는 지문, 그리고 강연 종료 시각(16:20 종료) 아래의 최하단 부분에 쓰여진 "(이 날 대통령은 강연 자료 목차 첫 장에 파랑 볼펜으로 '민영화, 이공계, 불확실, 규제 완화, 노사 관계, 부동산 자금, 위기 관리' 7개 낱말을 적어 놓고 목차 제목과 함께 참고하며 1시간 20분 동안 자료를 넘겨 보지도 않고 내리 정리해 온 생각을 중심으로 강연함)"이라는 배석 기록자의 '(자궁심 어린?) 소회'까지 '기록'되어 있다.

'접견'도 대통령 행사 유형 중 하나인데, '대면 접견'이 있는가 하면 '전화 통화'와 같은 방식도 있다. 《해양경찰청장과의 전화 통화》(1010211100405392)는 2006년 4월 일본의 독도 해역에 일방적으로 해양탐사선을 출발시키는 '도발적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대응 조치 내용을 잘 보여주는 '말씀록'이다.²¹⁾ 당시 대통령은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2천톤급 이상의 대형 해경선을 곧바로 동해의 EEZ 수역에 집결시켰다. 해군 제1함대 파견과 F-15K의 출동, 그리고 P-3C 출동이 이어졌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해양탐사선을 동해 EEZ 수역을 침범할 경우 발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통보한다. 4월 25일 대통령 명의로 발표된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1010211100405202)는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20) 《2004년_05월》(1010211000006628)

21) 《2006년_04월》(1010211000006644)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는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역사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에 비해서 한일간 ‘긴장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된 4월 28일 청와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해양경찰청장과의 4분 간(09:03~09:07)의 ‘짧은’ 통화에서는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속마음이 읽힌다. 대통령의 ‘격려’ 전화에 고무된 해양경찰청장의 강력한 ‘납포’ 의지 피력에 대해 국제법학자들과의 협의를 근거로 ‘격침’(격침 후 인명 구조를 전제로)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한다. 대통령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고마움을 같은 해 6월 22일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동해 EEZ 해양 주권 수호 관련 해양 경찰관 격려 오찬’(200명 초청)으로 표현했다.²²⁾

이상의 몇 사례만으로도 참여정부의 대통령 행사기록 중에서도 핵심 기록인 ‘대통령 말씀록’이 가지는 내용과 구성적 특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록’의 중요한 특성은 ‘분류체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표 11〉은 【말씀록DB】의 분야별 분류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생산 부서와 내용에 따라 ‘말씀록(원문)’을 주제별로 분류 등록하여 검색 활용에 대비하였던 것이다.²³⁾ 2007년 7월 27일 현재, 8개 대분류에 60개의 중분류 체계에 5,681건의 ‘말씀록(원문)’이 등록되어 있다.²⁴⁾ 이는 주제별로 분류 등록할 때 대분류와 중분류 선택을 2개까지 할 수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의 주제별 분류는 수석보좌

22)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결과물에는 【말씀록DB】의 ‘대통령 말씀록’ 기록건(35개)에 대한 ‘간략 해제’가 실려 있다.

23) 【기록물관리 점검, 교육】의 《부서업무 매뉴얼 작성》-《기록관리비서실 업무 매뉴얼 종합 보고》(1010211100013170)-〈대통령말씀DB 운영 매뉴얼(07.11.9)〉(10102110001317000002400) 참조.

24) 【말씀록관리】의 《대통령 말씀DB 시스템 운영 및 원문 제공》(1010211000000083)-《대통령말씀DB시스템 현황보고》(1010211100013257) 참조.

관회의는 국정상황실, 국무회의는 경제정책비서실, 국정과제회의는 정책조정비서실, 회견 등 대언론 관련 행사(회의)는 국내언론비서실, 연설이나 대국민담화, 특강, 영상메시지 등 사전 원고가 있는 경우는 ‘연설비서실’에서 주제별로 분류 등록하는 ‘협업’ 방식으로 수행되었다.²⁵⁾ 참여정부기 출간된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제5권)의 각 권의 목차 말미에 있는 ‘부록-분야별 차례’는 이 분류 방식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대통령말씀DB시스템의 운영매뉴얼〉의 분야별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정치	정치일반 / 정치개혁 / 국회 / 정당 / 선거 / 기타
통일·외교·안보	통일·남북관계 / 외교일반 / 대미 / 국방정보 / 기타
경제	경제일반 / 민생안정 / 무역·통상 / 중소기업 경제시스템 / 조세·재정 / 균형발전 / 부동산·주택 금융 / 일자리창출 / 서비스산업 / 양극화해소 에너지 / 농림·해양 / 건설·교통 / 기타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 보건의료 / 노동 / 환경 / 청년 / 노인·아동·장애인 / 여성 / 인권 / 보훈 / 기타
교육·문화·언론	교육일반 / 문화관광 / 체육·예술 / 언론 / 홍보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 정보통신 / 기타
일반행정	행정일반 / 정부혁신 / 지방분권 / 인사 / 자치행정 / 사법·검찰·경찰 / 반부패·감사 / 소방·재해 / 기타
청와대·기타	청와대 일반 / 국정운영 / 회의운영 / 업무혁신 / 기타

이와 같이 【말씀록DB】의 생산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분야별 분류표’는 굳이 기록의 ‘연속적 관리’라는 관점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기록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5) 【말씀록관리】의 동일한 기록철 하위의 《대통령말씀분류 관련 계획(안)》(101021110 0013254) 참조.

5. 맺음말

참여정부 기록관리비서실이 수행한 업무 중에는 ‘대통령행사 기록’의 수집·관리와 ‘대통령말씀록’의 생산·관리가 있다. 필자는 ‘대통령말씀록’이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회의 등과 관련해서 생산되는 ‘대통령행사 기록’의 핵심 기록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대통령 행사기록 수집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행사 기록’의 생산 맥락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관련 기록 건들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면서 【대통령국정말씀록 관리】, 【개별업무시스템 말씀록DB】, 【기록물 수집 이관】, 【기록물관리 점검 교육】, 【기록물정리 서고관리】,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 개선】 등 다른 업무기능에도 관련 기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비서실이 대통령말씀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해외 순방 기록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통령 행사기록을 수집·정리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와대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 기관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록관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대통령기록관에서 ‘비전자문서’로 분류되어 기록관리비서실의 업무기능과 관련된 생산 맥락 자체가 배제된 채 ‘대통령행사기록-국내행사’, ‘대통령행사기록-해외행사’로 별도 정리·기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록관리비서실은 대통령말씀록 작성팀이 생산한 대통령말씀록 중에서 일부를 선별·가공하여 대통령말씀DB시스템에 ‘말씀록(원문)’으로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개별업무시스템 중 하나인 【말씀록DB】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말씀록DB】는 【국정말씀록 관리】의 하위계층(아이템)으로 분류되어서 기술서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참여정부 대통령행사 기록에 대한 생산 맥락과 기록들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 확인된 이와 같은 사실들에 근거해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

령말씀록과 행사별로 수집·정리되어 있는 ‘행사기록’을 다시 정리하여 관련 기록간의 연계 정보와 기록간 매칭을 통해 기록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대통령행사 기록의 정리 상태가 기본적으로 ≪‘연도별-월별’≫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기록관 2011b, 354-357) 이는 기록관리비서실에서 이관했던 당시의 기록정리 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아무튼 참여정부 대통령 행사기록의 핵심 기록인 ‘말씀록’, ‘국내행사’, ‘해외행사’ 등은 현재 모두 ≪‘연도별-월별’≫ 체계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기록서비스 개선 방안으로는 이 ‘연도별-월별’을 기준으로 60개 ‘파일’로 분류된 ‘대통령행사기록-국내행사’의 경우, 행사계획서, 초대장, 회의자료, 친필메모, 팸플릿 등을 【말씀록DB】의 해당 ‘연도별-월별’ 기록철의 행사 기록건에 매칭하는 방식이다. ‘연도별-월별’ 기준으로 26개의 ‘파일’로 분류된 ‘대통령행사기록-해외행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관건은 행사별로 각 기록건에 대한 상세기술이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녹음테이프나 미니디스크 등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후에 ‘시청각 기록’으로 별도로 분류, 보존되고 있는 기록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말씀록DB시스템’에서 적용된 분야별 분류기준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대통령말씀록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곧 특정 기록에 대한 ‘활용 가이드’로도 이용 가능할 것이다. 【말씀록DB】의 말씀록 기록건은 내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건별, 시기별, 인물별, 분야별, 특정 주제별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높은 ‘기록’이다.

대통령기록의 이용에 있어서 기록건에 대한 상세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현재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기록컬렉션》-〈정보공개기록〉-〈친필메모〉를 사례로 들어 보자. 역대 대통령 기록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든 ‘친필메모’

405건을 ‘원문보기’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행사 기록건과의 연계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대통령이 어느 행사에서 메모한 것인지 알 수 없다.²⁶⁾ <정보공개기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청구된 정보공개결과의 결과물을 ‘재활용’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관련 기록의 유형과 그 특징을 알리려는 적극적인(?) ‘기록행정’ 사례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결코 추천하거나 장려할 만한 전문적 아카이브의 기록정보서비스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개별 기록건 이상의 기록철에 대한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기록관은 기록에 대한 기술의 목적이 “기록으로의 접근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기록의 맥락과 내용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데 있다”는 원론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기록사료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조직의 업무기능에 따라 기록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중요 기록건의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대통령 행사기록’의 생산 맥락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 그리고 이에 토대한 업무기능 간 연계성과 기록 간의 관련성, 그리고 중요한 기록 건들의 내용까지 확인하였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의 시리즈(또는 서브시리즈) 계층에만 국한한 기술 문제, 그리고 이를 합리화하는 단일한 업무 기능 내부에 국한된 ‘기계적’이고 분류와 정리 방식이 초래한 여러 문제들을 재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그 중에서도 대통령 행사와 관련된 기록이 가지는 특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록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개별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전망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민간 전문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국가기록원으로부터의 조직적 독립 등을 계기로, 대통령기록관이 기록정보서비스 전략

26) [https://www.pa.go.kr/portal/research/infodisclos/infodisclosList.do\(2021.12.27., 13:00~15:30\)](https://www.pa.go.kr/portal/research/infodisclos/infodisclosList.do(2021.12.27., 13:00~15:30))

을 마련해서 장기적 전망하에 적극적으로 기록정보서비스 정책을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건홍 (2019).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기록 재조직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1.
- 곽건홍 (2020).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3.
-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7: 정부혁신, 85-86.
- 김도윤·이해영 (2021).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139-162.
- 대통령기록관 (2011a).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노무현대통령 문서편 I
- 대통령기록관 (2011b). 2011 대통령기록물기술서집.
- 대통령기록관 (2013). 대통령기록물(08년 이관) 정리·기술 백서.
- 대통령비서실 (2004-2008).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제5권).
- 심성보 (2020). 2017~2020년 기록관리 혁신 평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5, 7-46.
- 이영지·오계윤·정상준·윤은하 (2018).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 및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대통령기록물 서비스 현황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69-97.
- 조영삼 (2011).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논문.
- 조영삼 (2020).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기록학연구, 65, 47-88.